

〈종교 개혁 다섯 솔라의 의미〉

성경말씀: 딤후3:16-17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가관이 확실한 성도
2017년 10월 31일은 루터의 종교 개혁 500주년, 전 세계적인 기념 대회, 의미 확인

지난 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1517년 비텐베르크,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 루터의 이신칭의 설교

인쇄술 성경 번역 확산,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스테파누스 성경,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사역 개혁교회, 올리베탕 성경,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붓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파급되면서 로마 카톨릭 전체주의 암흑시대가 밀려나기 시작함.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순신이 활약하던 시기

그 당시 여러 종교개혁자, 이들의 주장과 믿음도 많았다. 서로 다른 점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다섯 가지 믿음이 있었다.

라틴어 다섯 솔라: 1. Sola Scriptura(오직 성경), 2.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 3. Sola

Gratia(오직 은혜), 4. Sola Fide(오직 믿음), 5.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솔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들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 〈종교 개혁 다섯 솔라의 의미〉

1.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계시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딤후3:16,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넣어주셨다.

〈오직 성경〉 정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기록하신 권위 있는 말씀이며,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문체가 명료하며 자기 해석이 가능하다.

종교개혁 당시의 문제: 1.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가 아니다. 2.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과 성직자들의 말도 같은 권위를 갖는다. 3. 동시에 교회가 지켜온 전통들도 같은 권위를 갖는다.

최소 3가지의 권위: 성경, 교황의 말, 전통, 이 셋이 모순될 때는 교황의 말이 최종 권위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함

〈오직 성경〉의 의미: 믿음과 실행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이다(딤후3:16).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사탄, 천사, 마귀, 사람, 죄,

구원, 성화, 교회, 재림, 휴거 등 모든 교리, 잘못되면 잘못 믿고 심지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서거나 넘어짐이 교리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느 종교보다 교리 논쟁이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유일한 최종 권위로 주어져 있다.

사람의 말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려는 시도는 천주교에만 있지 않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마15:2-6,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교회의 전통 중에 좋은 것들은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것들은 버려야 한다.

종교 개혁 당시 사람들의 무지는 성경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주후 400년경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불가타)만 인정함

1. 다른 말로 성경 번역하는 것 반대: 평민들은 알아듣지 못함

2. 성경 용어 변경, 회개하라는 말을 고백성사하고 속죄물을 바치라는 말로 변경(Penance)

3. 라틴어 성경의 본문 자체가 부패됨, 천주교 소수 사본(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등 콘스탄틴이

유세비우스에게 만들라고 한 50개 부패된 성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라스무스가 등장하였다. 그 당시 최고의 그리스어 학자, 〈우신예찬〉

천주교의 모든 사본을 배제하고 보통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유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한

보편적 본문인 공인 본문 편집,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제의 성경 독점 파괴

루터, 틴데일, 그리고 칼빈과 그의 사촌인 올리베탕, 레이나 발레라, 디오다티, 체코 성경 등이 나옴

라틴어 성경은 카톨릭 교회 안에만 갇히고 온 유럽은 에라스무스의 반카톨릭 공인본문 성경 확산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에 의해 무너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등장
틴데일 이후 제네바 성경을 거치면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며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고 복음 선포, The Holy Bible,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1.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 2. 사본들의 증거, 3.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적 증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성경이라고 믿는다.

총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님, 한국에서 종교 개혁 운동의 최고 전문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려면 종교개혁
본문을 취해야 한다. 그 본문은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다.

2.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인간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채 죽은 상태에 있다(롬3:23). 인간은 이 같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죽은
뒤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히9:27; 롬6:23).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제거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다.

종교인들의 생각: 열심히 선하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롬10:1-3, 사도 바울의 결론, 유대인들이 열심히 의를 행하였으나 그것은 무지의 소산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결레누더기

면죄부, 고백성사 후 무슨 일을 하든지, 십일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건축헌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살 수 없다.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종교라고
한다. 대다수가 착한 사람들,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영생과 구원의 의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불의한 자가 되었다.

구원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가시와 좋은 엉겅퀴가 나온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죄인이 될 뿐이다.

본질에서 변함이 없으면 수많은 노력이 무효하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대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13:23)

하나님이 만든 구원 방법: 대신 속죄

죄 없는 것이 대신 죽어서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구약시대 짐승, 끝이 없다. 불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무결한 희생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오직 그리스도’라 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말이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분이다. 특히 사복음서에 기록된 분이다.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분이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유일하신 분이다.

Sola Gratia (오직 은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엡2:8-9

은혜와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은혜는 구원의 동기와 동력 표현,
반면에 믿음은 구원의 수단에 대해 말한다.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으로서 거기에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종교개혁 당시: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함, 그런데 거기에 더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 면죄부, 고백성사
참회 후 보속

은혜 시스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은 모두 거저 받는다. 공기, 물, 햇빛, 부모 등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값 주고 인간의 공로로 사는가?

하나님의 법칙(롬11:6), 100% 하나님의 은혜,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행위 더하면 이미 끝

Sola Fide (오직 믿음)

은혜와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은혜는 구원의 동기와 동력 표현,
반면에 믿음은 구원의 수단에 대해 말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종교 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들의 용서는 받아도 죄들에 대한 벌은 남아
있어 선행(성사, 성지 순례 등)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살아 있는 동안 그것을 갚지
못하면 연옥에서 남은 벌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고, 면죄부는 그런 노력이나 고행을 '현금'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했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했던 것이다. '칭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공로에 기초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다. "아무리 고민하고 고행하고 밤을 새고 심지어 로마를
방문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루터는 더욱 구원을 위해 열심을 냈지만 그럴수록 좌절과 절망은
커졌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의'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
을 때였다. 그가 가장 강력하게 '오직 믿음'을 외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롬1:17, 3:21-22, 27-28, 4:4-5

1. 행위가 구원(칭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주님의 생명에 의해 선한 행위를 낸다. 행위가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엡
2:10; 약2:26).
3. 천주교 사본 성경, 뵤전 2:2,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 개혁 당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를 대적할 권세는 없다.

그러다 보니 온 영광을 교황과 교회가 독차지하였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던 기존 교회에 반하여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 교회, 교단, 교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나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는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한다.

사42:8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교훈

1.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로 믿는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본문 성경
2.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가? 종교다원주의 No!
3. 구원은 우리 행위와 무관하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믿는가?
4.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선한 행위
5.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가?